

“교육·입시 이슈 정리해줘 바쁜 직장맘에게 유용해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먼저 자녀를 대학에 보낸 친척이 <내일교육>이 교육·입시 정보를 얻는 데 유용했다며 추천해줬어요.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직장도 다니다 보니, 입시 정보를 직접 찾아보거나 학교 밖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모르는 것은 많고 정보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독하게 됐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요즘 교육이나 입시 제도가 워낙 빠르게 바뀌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교육 이슈와 입시 제도 변화를 다룬 <내일교육> 기사를 관심 있게 봐요. 아이가 이제 고1이라 대입 마무리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알아가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진로와 관련해 고민이 큼니다. 아이는 언어 쪽에 강점이 있는 편인데,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전공과 진로를 찾았으면 해요. 외교 분야나 외무 공무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보름 알고 싶어요.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대입도 중요하지만, 대학 전공이 나중에 실제 직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요즘은 희망 학과에 진학하더라도 꼭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선배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간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외교관 등 공무원처럼 학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과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Reporter's A/S

고이라면 지금 당장 희망 전공이나 직업을 정하기보다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해 시야를 넓혀보세요. 언어에 강점이 있다면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통상, 해외 홍보 등으로 관심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교육〉의 '생생 일터뷰' 기사와 '전공을 부탁해' 기사를 함께 보면 관심 있는 직업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 전공을 연결 짓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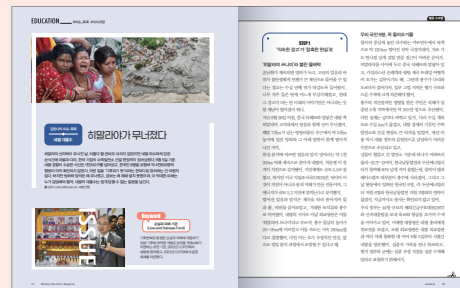
본지 1184호
'꿈 찾는 생생 일터뷰 |
식민지역사박물관 김혜영 연구원' 기사 참고



2026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31 |
가톨릭대 프랑스어문화학과 정현희(강원대부고)

콘텐츠에서 시작된 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계로

“아이가 고이라 앞으로 수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실제 합격생이 관심 분야를 찾고 학교 활동을 이어간 과정을 볼 수 있어 대입 준비에 참고가 됐습니다.”



김한나의 이슈 콕콕 | 네팔 대흥수 히말라야가 무너졌다

“평소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최근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줘 유용했어요.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1243호

1242호